



정교회주보

제2494호

2024.10.13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성 라브라 수도원(사진)은 그리스의 유서 깊은 수도원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칼라브리타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벨리아산 기슭의 해발 933m에 자리하고 있다. 961년에 수도사 유게네에 의해 설립되었다. 1585년 화재로, 1844년 지진으로, 1943년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나 재건되었다. 도서관은 3,000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루가 제4주일

제7차 세계공의회 참석 성 교부들
성 카르포스, 성 바빌로스 순교자
(제7조 • 조과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7조 부활 찬양송 82
 - 성 교부 찬양송 8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디도 3,8~15 (봉)539
 - 복음경 : 루가 8,5~15 124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나..."(요한 14,10~11) 만약 신적이고 영원한 차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에 대해 생각한다면, 특별히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연합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특별히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현존하시고 행동하신다는 사실에 모아잡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들 안에 있다."(요한 14,20) 영원의 차원에서는, 특별히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부각됩니다. 지상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행동과 순종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빛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부각됩니다.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말씀과 씨와 열매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주님의 말씀은 언뜻 별 깊이가 없는 매우 단순함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의 은총과 성령이 함께 하는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깊이의 차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이 잠재적인 양심이 바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그는 많은 변화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비록 당장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부족함을 갖고 있더라도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기적을 받게 되어 경건과 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다. 또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 깊은 사람이 되고, 세속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영과 육을 살찌게 만드는 영적 음식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믿음, 경건, 덕 등 영적인 결실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거룩한 말씀의 씨는 설교와 교리 공부, 성서 읽기와 신앙 대화, 기도, 각종 성사 참여 등을 통해 얻어야 하고, 그 영적 지식을 실천해서 성찬식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영접해야 만이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영적 말씀은 깨달음을 통해 죄를 회개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생기게 만들어 준다. 제일 훌륭한 결실은 주님의 말씀이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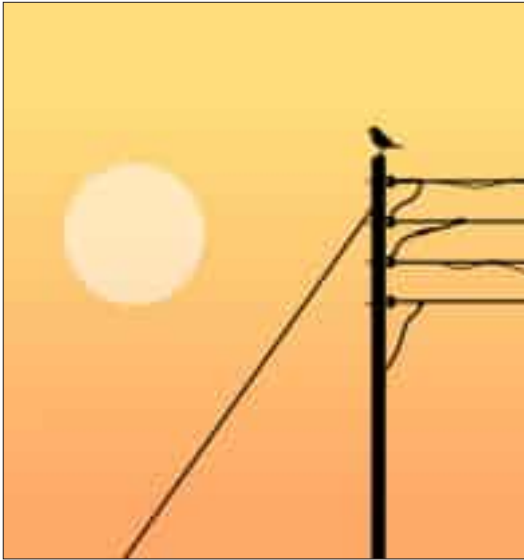
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 그 어떤 사탄의 유혹도 뿌리치고 이기는 힘이 솟구치게 되어 영적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은 꼭 열매를 맺어야 만이 그 가치가 있으나 그 열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마음과 실천에 따라 다르게 열린다.

교인들은 설교를 듣고 교리도 배우며 성서도 읽고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영적 만족을 얻으려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도 깨닫고 감동하며 믿음의 열정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되어 그러한 열정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서 점차 멀어지는 현상을 맞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로지 이론으로만 받아들이고 생각해서 말로만 할 뿐,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귀찮아하며, 이전의 세속적인 삶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정의, 자비 등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맞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한 실천은 이전의 나를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만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점을 회개하며 계속해서 투쟁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고백성사에 임하여 주님의 거룩한 영성체를 모시고, 주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 영과 육 모두 구원을 받는 열매를 얻도록 해야겠다.

영적 성장을 위한 조언 4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당신은 사실상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며, 그밖의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평화로우며, 쾌활하고 생기가 넘치며,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우울함이나 질병,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당신은 별세계에서 무한히 살아갑니다.

당신은 천사들, 성인들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은 지구 위에서 사람들, 나무들, 식물들, 꽃들, 동물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마음 안으로 오시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며 정념(情念, 파토스)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 포르피리오스 아토스 성산 수도사제(1906-1991)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법을 만드셨습니까?

곧, 우리는 우리의 적과 우리를 대단히 슬프게 만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좋은 성격과 기질(氣質), 침착하고 차분한 정신, 겸손한 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슬프게 한 적을 비난하고 규탄하는 사람은 결코 합당하게 기도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그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349-407)

주간 예배 안내

* 10월 18일(금)

성 루가 복음사도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다음 주일(10월 20일), 성찬예배 후에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정교회를 알리는 선교적 차원의 행사에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알림

■ 가평 수도원,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마치고

지난 3일(목),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맞아 많은 신자가 참례한 가운데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로만 대신부,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요한 박인곤 신부의 집전으로 성찬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소티리오스 대주교 묘소에서 추도식을 통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오찬과 함께 사제서품 35주년을 맞은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를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날(2일)에는 축일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축일 맞이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 성당 세례성사

성 막심 성당에서 12명의 예비자가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4일(금) : 신 밀라나 (영아)

6일(주일) : 김 아르투르, 이 스베틀라나, 채이 에카테리나, 쟈 안드레이 (성인)

쟈 에카테리나, 차 레오니드, 차 안나, 한 마리아, 우리브스키 다비드, 백 마리아, 백 이반 (영아)

영성의 샘터

하느님께서서는 다 아신다

이사야 사부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대의 가치 없음을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기도를 드린다면 하느님께서서는 즉시 그대의 기도를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형제는 이 시간에 잠을 잔다거나, 또 어떤 형제는 나태하다거나 하는 생각에 빠져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그대의 수고는 완전히 의미를 잃고 말 것이다.”